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stitution

박인희*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Inhee Par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hinsung University, Dangjin 31801, Korea

[요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C도에 소재한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까지 수집하였다. SPSS 26.0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773, p<.01$),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7.87, p<.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r=8.34, p<.01$)이 서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F=57.86, p<.001$), 설명력은 75.5%였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제도적인 교육전략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ed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adult learne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2022 to January 31, 2023, targeting 120 adult learners and nursing students attending 5 universities located in C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academic self-efficacy ($r=.773, p<.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7.87, p<.01$), Academic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8.34, p<.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college life satisfaction, practical peer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confirmed as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F=57.86, p<.001$). The explanatory power was 75.5%.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adult learner nursing students, an institutional educational strategy will be needed to develop interventions that can increase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ttp://dx.doi.org/10.14702/JPEE.2023.08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3 March 2023; Revised 30 March 2023

Accepted 4 April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park0200@shinsung.ac.kr

Key Words: Academic Self-efficacy, Adult Learn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 시대와 산업변화에 따른 직무 역량과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1]. 2021년도 한국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 성인(만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였다. 생애주기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1단계(만24세 이하), 2단계(만25~49세), 3단계(만50~74세), 4단계(만75세 이상)로 나뉘며[2], 그 중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만학도) 인정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2항12호)에 근거하여 만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들은 연령별 생애주기를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정규과정을 마친 뒤 직업, 가족부양, 경제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에서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입시전형을 실시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였다. 성인학습자의 전문대학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만19세 이하는 43,432명(-29.5%) 감소하였고, 성인학습자(만25세 이상)는 7,327명(36.8%) 증가하였다[2].

간호학과는 4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지식과 숙련된 실무역량을 갖추는 간호사 양성에 중점을 두는 학과로 높은 취업률과 간호인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입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과의 유턴입학 지원자 현황은 2019학년도 690명(45.3%), 2020학년도 740명(47.1%), 2021학년도 884명(50%), 2022학년도 876명(49.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학습자의 간호학과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간호학과 적응 경험 연구[4]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 암기력의 어려움, 시간의 절대적 부족, 교우관계 어려움, 가정과 학업사이의 갈등 등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려면 학습에 필요한 요소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업적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활용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지식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

념이다[5].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 진로 및 학업관련 행동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 및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간호사는 전문직임으로 간호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소명 의식, 사명감과 지식, 태도 등 전문직관이 뚜렷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활동 및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말한다[7].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간호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학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이론, 임상술기능력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전문직관이 높은 긍정적인 간호사는 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도 높으며[8,9], 간호업무수행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간호전문직관에 관심을 갖고 간호전문직 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은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이 필수적이며,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의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과정과 방법 훈련을 통해 간호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임상실습을 경험한 한 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11,12], 임상실습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을 함에 따라 간호에 대한 가치를 높여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만25세 이상이며, 임상실습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자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 효과크기 .15, 1종 오류 .05, 검정력 .80, 독립변수의 수 10개(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일반적특성 8문항)를 지정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1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해 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으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까지였다. 설문지는 92% 회수되어 12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소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C. 연구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활용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5] 본 연구에서는 Ayres[5]가 개발한 도구를 Prak과 Kweon[14]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했다. 총 10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Ayres[5]가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4이었고 Prak과 Kweon[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3이었다.

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는 Cho과 Kang[15]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6]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측정도구이다.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 평가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로 나타났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Yeun 등[7]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Lee[17]의 도구로 26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4문항, 간호실무 역할 3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개 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다.

D. 자료분석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A.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여자 88.0%, 남자 13.0%이었으며, 연령별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20)

특성	범주	n(%)
성별	여자	105(88.0)
	남자	15(13.0)
연령 (year)	25~29세	51(43.0)
	30~39세	38(32.0)
	40~49세	22(18.0)
	50세 이상	9(8.0)
학년	3학년	61(51%)
	4학년	59(49%)
학점	≤2.9	32(27.0)
	3.0~3.4	29(24.0)
	3.5~3.9	39(33.0)
	≥4.0	20(17.0)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19(16.0)
	만족	50(42.0)
	보통	37(31.0)
	불만족	10(8.0)
	매우 불만족	4(3.0)
실습동료관계	매우 좋은편	40(33.0)
	좋은 편	48(40.0)
	보통	31(26.0)
	좋지 않은 편	1(1.0)
	매우 좋지 않은 편	-
전공만족도	매우 높다	25(21.0)
	높다	55(46.0)
	보통	34(28.0)
	낮다	5(4.0)
	매우 낮다	1(1.0)
임상근무경험	없음	43(36.0)
	있음	77(64.0)

는 25~29세가 43.0%, 30~39세가 32.0%로 전체 연령의 75%를 차지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42.0%, 보통이다가 31.0%이며, 실습동료와의 관계 있어서는 매우 좋은 편이다 33.0%, 좋은 편이다 40.0%로 73%가 실습동료와 관계가 좋은 편 이상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높다 21.0%, 높다 46.0%로 67%가 높은 편이었다.

B.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F=7.02, p<.001), 임상실습만족도(F=10.20, p<.001), 간호전문직관에서(F=6.64, p<.001)의 차이가 있었다. 실습동료관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F=6.65, p<.001), 임상실습만족도(F=6.63, p<.001), 간호전문직관에서(F=7.89, p<.001)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에 따라 학

업적 자기효능감(F=6.01, p<.001), 임상실습만족도(F=8.84, p<.001), 간호전문직관(F=6.75, p<.001)로 차이가 있었다.

C.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계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계수는 임상실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773, p<.01),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7.87, p<.0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r=8.34, p<.01)이 서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D.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생활 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전공만족도와 연구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VIF는 1.69~2.66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 값은 1.56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이 만족함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F=57.86,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75.5%였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으로 가장 결정력이 큰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β=.53, p<.001), 임상실습만족도(β=.35, p<.001), 실습동료관계(β=.11, p=.095), 전공만족도(β=.01, p=.961). 대학생활만족도(β=-.02, p=.739)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4.22점, 임상실습만족도 4.20점, 간호전문직관 4.20점이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변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M±SD	t/F(p)	M±SD	t/F(p)	M±SD	t/F(p)	
Total	4.22±0.74		4.20±0.76		4.20±0.68		
성별	여자	4.19±0.75	-1.22	4.15±0.78	-3.37	4.16±0.68	-1.75
	남자	4.50±0.69	(.224)	4.68±0.41	(.065)	4.56±0.66	(.083)
연령 (year)	25~29세	4.32±0.69		4.30±0.64		4.29±0.67	
	30~39세	4.02±0.87	1.60	4.11±0.93	.454	4.14±0.77	.584
	40~49세	4.29±0.58	(.193)	4.12±0.75	(.715)	4.20±0.61	(0.627)
	50세 이상	4.15±0.52		4.18±0.59		4.01±0.46	
학년	3학년	4.34±0.68	1.66	4.33±0.63	1.73	4.08±0.71	1.72
	4학년	4.10±0.79	(.760)	4.07±0.87	(.013)	4.08±0.71	(.168)
학점	≤2.9	4.02±0.73		4.16±0.81		4.05±0.69	
	3.0~3.4	4.37±0.56	1.30	4.08±0.69	.49	4.32±0.48	1.00
	3.5~3.9	4.20±0.90	(.278)	4.24±0.86	(.689)	4.15±0.81	(.393)
	≥4.0	4.41±0.59		4.37±0.54		4.37±0.61	
대학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a	4.72±0.39		4.95±0.05		4.68±0.24	
	만족 ^b	4.43±0.59	7.02	4.36±0.58	10.20	4.36±0.54	6.64
	보통 ^c	3.77±0.80	($<.001$)	3.67±0.77	($<.001$)	3.80±0.73	($<.001$)
	불만족 ^d	4.01±0.83	cd(a)	3.95±1.18		4.15±0.90	e(a)
	매우 불만족 ^e	3.82±0.86		4.13±0.64		3.70±0.92	
실습 동료 관계	매우 좋다	4.60±0.52		4.62±0.53		4.55±0.49	
	좋은 편	4.09±0.81	6.65	3.99±0.79	6.63	4.1±0.70	7.89
	보통	3.82±0.64	($<.001$)	3.9±0.80	($<.001$)	3.71±4.1	($<.001$)
	좋지 않은편	3.4±0.01		4.25±0.01		3.70±0.01	
전공 만족도	매우 높다	4.71±0.35		4.88±0.23		4.69±0.31	
	높다	4.27±0.67		4.15±0.75		4.22±0.68	
	보통	3.74±0.82	6.01	3.72±0.74	8.84	3.75±0.62	6.75
	낮다	4.08±0.91	($<.001$)	4.14±0.54	($<.001$)	4.10±0.87	($<.001$)
	매우 낮다	4.50±0.01		4.70±0.01		4.50±0.01	
임상근무 경험	없음	4.10±0.63	1.40	4.03±0.88	2.38	4.05±0.63	2.23
	있음	4.28±0.79	(.239)	4.28±0.69	(.126)	4.27±0.70	(.138)

표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계수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20)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773**	1
간호전문직관	.787**	.834**

**p<.01

표 4.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ism institution (N=120)

종속변수	독립변수(참조변수)	B	S.E.	β	t	p
간호전문직관	(상수)	.495	.242		2.045	.044
	대학생활 만족도	-.017	.052	-.02	-.334	.739
	실습동료관계	.095	.056	.11	1.685	.095
	전공만족도	.003	.056	.01	.050	.961
	임상실습만족도	.313	.074	.35	4.247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485	.076	.53	6.362	$<.001$
R ² (ΔR^2)				.755(.742)		
F(p)				57.862($<.001$)		

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한 Whang[18] 연구에서는 3.09점, Shim[19] 연구에서는 3.18점으로 본 연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 한 Lee[20]의 연구에서 3.24점, Yang & Moon[21]의 연구에서는 3.11점으로 본 연구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 한 Cho & Kim[12]의 연구에서는 3.59점, Jeoung & Kim[22]의 연구는 3.62점으로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연구 대상자가 일반 간호대학생인 아닌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으로 표집하여 표집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이미 간호학과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으로 일반적인 간호학생에 비해 간호학에 대한 관심도나 직업에 대한 긍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동료지지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won & Choi[2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영향 요인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을 75.5%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이는 Yeun 등[9]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하게 정립될 경우 간호의 효율성, 직무만족감,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며, Kim 등[25]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온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26]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이 크며 동급생

과의 세대차이로 인한 교우관계의 어려움, 가정과 학업사이의 갈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4].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학업을 스스로 선택하였기에 학습동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습 성취도 등 학습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27]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극복하고 과제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니즈(needs)에 맞는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지지할 수 있어야 겠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증가하였다. 이는 임상실습만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Park 등[28]의 연구와 유사하며, Jung 등[29]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간호전문직관을 36.7% 설명하였다. 임상실습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술기 및 실무를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간호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시 현장지도자 및 간호사를 통해 멘토링경험, 다양한 교과목의 임상환경, 임상실습내용, 실습평가 등 경험을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간호에 대한 이미지, 역할,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30].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입학 전 임상근무경험이 있는 학생이 64%였고, 임상근무경험 유무 모두 임상실습만족도는 4점 이상의 결과를 보였지만 간호학생으로의 임상실습 경험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기회가 적고 주로 관찰 위주의 실습, 실습환경, 대인관계, 실습생으로의 역할, 실습과제 등으로 동급생들과 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가지고 있었으며[31], 특히 간호사와의 멘토링 경험이 부족하여 임상실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임상실습이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교원은 성인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임상실습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와의 멘토링 형성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직접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제안하며, 성인학습자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 토대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Ministry of Education, "Strateg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innovation support in Universities," May 20, 2021 [Internet].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4467&lev=0&searchType=null&statusY>.
- [2]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Announcement of the main points of the 「2023 College admission implementation plan」," Jun. 8, 2021 [Internet]. Available: <https://www.kcce.or.kr/web/board/1485.do?mode=view&schBcode=&schCon=0&schStr=2023%ED%95%99%EB%85%84%EB%8F%84%20%EC%A0%84%EB%AC%B8%EB%8C%80%ED%95%99%20%EC%9E%85%ED%95%99%EC%A0%84%ED%98%95%20%EC%8B%9C%ED%96%89%EA%B3%84%ED%9A%8D&pageIndex=1&pageUnit=20&idx=53512>.
- [3] Y. L. Paik and B. N. Song,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in college life," *Journal of Quality Research*, vol. 16, no. 2, pp. 85-95, 2015.
- [4] J. A. Lee and J. G. Hwa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est-major congruence,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major adjustment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3, no. 2, pp. 107-121, 2012.
- [5] 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Ph. D.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 2005.
- [6] H. Chae,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areer concern typ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ec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1, pp. 706-720, 2021.
- [7] E. J. Yeun, Y. Kwon, and O.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8] G. M. Hampton and D. L. Hampton,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Business Research*, vol. 57, no. 9, pp. 1042-1053, 2004.
- [9] K. Hallin and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2008.
- [10] S. S. Hong, J. A. Hong, and W. H. Ju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361-369, 2013.
- [11] J. Seong, E. Yeom, and Y.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798-809, 2014.
- [12] H. H. Cho and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48-557, 2014.
- [13] S. Y. Lim, S. Y. Kim, and H. M. Choi,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pp. 45-51, 2015.
- [14] S. Y. Park and Y. R. Kweon,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 79-88, 2012.
- [15] K. Cho and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63-74, 1984.
- [16] S. H. Lee, S. Y. Kim, and J. A. Kim, "Nursing students'

-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17]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1.
- [18] S. A. Whang,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 2, pp. 73-85, 2021.
- [19] C. Sh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2, pp. 17-25, 2018.
- [20] H.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 [21] N. M. Yang and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 [22] H. Y. Jeoung and S. Y. Kim,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5, pp. 531-539, 2016.
- [23] Y. Kim, “Effect of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6, pp. 189-197, 2022.
- [24] J. Kwon and B. S. Choi,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5, pp. 297-304, 2020.
- [25] Y. S. Kim, H. H. Kim, and J. E. Kim,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2, pp. 171-184, 2021.
- [26] M. H. Jang, M. Kwak, and J.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9, no. 1, pp. 1-18, 2020.
- [27] J. Chun, “A study on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higher-order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learner-centered learn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6, pp. 2317-2332, 2021.
- [28] B. Park, S. Park, and H.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220-227, 2016.
- [29] K. T. Jung, Y. J. Ha, N. Y. Oh, S. Y. Kim, M. J. Kwon, N. H. Lee, Y. R. Lee, and K. H. Yang,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2, no. 1, pp. 23-36, 2018.
- [30] J.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3, pp. 325-34, 2004.
- [31] H. Jeon, “A study of convergence on experiences of clinic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569-79, 2018.



박인희 (Inhee Park) _정회원

2008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2017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2017년 3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